우리말 어휘의 시간을 읽다

응

오늘의 뜻에서 옛 문헌까지



오늘의 뜻

아랫사람이나 대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묻는 말에 긍정하여 대답하거나 부름에 응할 때 쓰는 말.

문헌의 첫 기록	수록 용례	수록 내용
20세기	3개	뜻 · 표기 · 문헌

사전의 뜻풀이, 옛 표기와 문헌 용례를 함께 읽는 자료입니다.
모든 뜻과 세기의 기록을 수록했습니다.

우리가 알고있는 '응'의 뜻

국어사전 뜻풀이

사전에 수록된 오늘날의 뜻입니다.

> 아랫사람이나 대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묻는 말에 긍정하여 대답하거나 부름에 응할 때 쓰는 말.

응의 표기 연대표

표기의 변화와 공존

응의 표기를 세기별로 모았습니다. 같은 세기에 여러 표기가 함께 쓰이기도 했습니다. 연대표는 모든 문헌 뜻의 기록을 모으며, 연결된 용례는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을 기준으로 읽습니다.

표기 · 근거	15세기	16세기	17세기	18세기	19세기	20세기
응 **사전 표기 요약**	—	—	—	—	—	● →

연대표의 근거와 읽는 법

- **사전 표기 요약**: 사전의 표기 변화 요약입니다.
- **문헌 수록 표기**: 세기별 문헌에 함께 실린 표기를 더한 것입니다.
- 점이 없는 시기에도 이 말이 쓰였을 수 있습니다. 표시된 세기는 자료에 기록이 남은 시기로, 낱말이 생기거나 사라진 때와는 구분됩니다.
- 점은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의 해당 세기 용례로 연결됩니다.

시대별 주요 표기 모아보기 1종

사전의 표기 요약과 문헌 수록 표기를 모았습니다. ‘현재’는 오늘의 표제어이며 역사 세기와 구분합니다.

- 응
  20세기현재

원자료의 전체 표기 목록 1종

응

응의 어원과 변화

이 말은 어떻게 달라졌을까

사전의 어원·변화 설명

소제목은 읽기를 위한 편집 안내

옛 표기와 변화

‘응’은 20세기부터 ‘응’으로 나타나 현재까지 이어진다.

문헌 속의 응

전체 용례 3개

모든 뜻과 세기의 문헌 용례입니다. 원문, 현대어 풀이와 출처를 함께 확인하세요.

20세기 응 용례 3개

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
응

출처 1907 귀의성 상:119

용례 01

문헌 용례

(침모) 어머니, 닉가 하ᄆᆞ터면 큰일을 저즈를 뻔하얏쇼 (로파) 응 큰일이라니, 드러 안진 녀편네가, 큰일이 무슨 일이란 말이냐.

현대어 풀이

(침모) 어머니, 내가 하마터면 큰일을 저지를 뻔하였소 (노파) 응 큰일이라니, 들어 앉은 여편네가 큰일이 무슨 일이란 말이냐.

출처 1908 현미경 242

용례 02

문헌 용례

에구 빙쥬가 죡엇구나 응 빙쥬가 죡엇셔 응.

현대어 풀이

에구 빙주가 죽었구나 응 빙주가 죽었어 응.

출처 1923 동아일보 8월 28일 1면

용례 03

문헌 용례

"세수ㅅ물 써와요?" 싀아버니는 잠이 설깨인 아이처럼 한참 쑤리퉁해서 안젓다가 "응 가저오렴!" 하고 자리를 거더 치엇다.

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.

- 세기 분류·표기·문헌명·현대어 풀이는 사전 자료 그대로 수록했습니다.
- 문헌의 연대와 세기 분류가 다른 경우에도 사전에 수록된 구분을 따릅니다.
- 용례 수는 이 사전에 수록된 예문의 수입니다.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와 구분해 읽어 주세요.

응의 참고문헌

사전 편찬 참고자료

별도의 참고문헌 목록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.

자료 출처

이 자료는 '단어의 역사'의 낱말 페이지에 수록된 사전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. 원문과 현대어 풀이, 주석과 문헌명은 원자료의 표기를 따릅니다.

용례의 수는 이 자료에 수록된 예문의 수이며,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를 뜻하지 않습니다.

history.wordrow.kr · 응의 뜻과 역사